

아름다운 도서관 건물과
편안함을 주는 시설,
특성화된 풍부하고
질 높은 전문자료,
실력있고 친절함 전문사서가
반겨주는 도서관의 3대요소를
완벽하게 갖춘

동서대학교 민석도서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ICC에서 개최되는 제44회 전국도서관대회 준비로 사무국 직원들은 한참 분주하다. 《도서관 문화》 편집팀도 지난달에는 추석연휴, 이번달에는 도서관대회 등이 있어 작업할 수 있는 날은 부족하고, 그러나 잡지는 매달 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그러던 중 동서대학교 민석도서관이 개관을 했으며 '2007 부산다운건축상'에서 두개 부문(우수디자인 건축물, 야간경관조명) 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동서대학교도서관은 도쟁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안성두 사서 때문에 친숙하게 느껴진 곳이기도 하다. 도쟁이 홈페이지는 각종 도서관관련 소식을 비롯해 도서관 관련 유용한 정



민석도서관 전경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동상이 있는 도서관 정면 계단

보를 거의 매일 업데이트해주는 사이트라 《도서관문화》도 적잖은 도움을 받아왔다. 그래서 이번 동서대학교 민석도서관 개관이 더욱 반가웠다.

바쁜 일정 속에 먼길을 다녀와야 하지만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출발전부터 흥분되었다. 이번에도 새벽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요즘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다보니 생각못했는데 옆좌석에 앉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 지금 부산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 등 문화행사가 한창 중이라고 한

다. 어쩐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기차에 평소보다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부산 구포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동서대학교로 이동했다. 학교에 들어서자 멀리서도 도서관 건물이 한눈에 보였다. 웅장하

고 뜬직한 모습에서 도서관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

동서대학교 민석도서관에 대한 첫인상은 마치 로마의 판테온신전처럼 굉장히 웅장하고 기품있으며 탄탄한 느낌이었다. 먼저 정면 계단에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동상이 시선을 머물게 했으며, 오른쪽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가 신기했다. 에스컬레이터 옆은 대나무로 멋스럽게 장식하고 있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도서관으로 올라가는 기분이 꽤 괜찮았다. 늘 책을 들고 계단을 힘들게 오르락내리락했던 기억이 나서 더욱 그랬는지 모른다.

도서관입구에 다다르니 민석도서관이라는 큰 현판과 조각상들이 보였다. 입구에 들어서니 대형스크린이 눈길을 끈다. 스크린에서는 세계 각국의 유명한 도서관 모습이 차례로 비춰졌다. 양옆으로 늘어선 이젤에도 아름다운 세계의 도서관 사진이 놓여 있었다. 10월 한달 여간 도서관 개관 기념행사로 ‘세계의 아름다운 도서관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전을 보고 나니 1995년 도서관 개관때부터 지



도서관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모습



민석도서관 입구



'세계의 아름다운 도서관 사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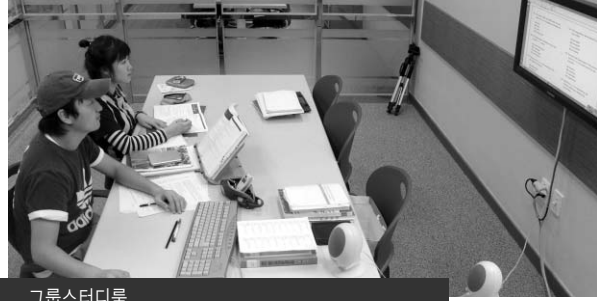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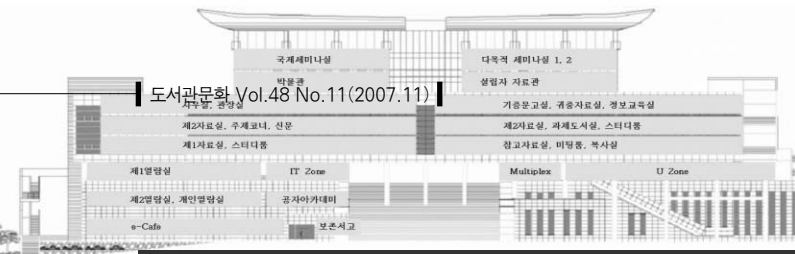
좌측으로부터 김경옥, 나기성, 이효은, 박광중, 배동환, 안재곤, 김진호, 안혜진, 안성두

금까지 동서대학교 도서관의 많은 일을 맡아온 박광중 사서(학술정보관리팀장)와 안성두 사서(열람관리팀장)가 반갑게 인사를 하며 우리를 맞아주었으며 도서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 동서대학교 민석도서관의 개요

동서대학교 도서관은 1992년 개교와 함께 설립되었고, 1995년 11월 23일 도서관전산화 토털시스템을 가동하면서 도서관을 신축개관했다. 이후 1999년 10월에는 학교특성화등으로 디자인 전문도서관을 개관했으며, 2001년에는 지역개방을 시작했다. 2002년부터는 지하철문고에 도서기중도 하고 있다. 2003년 9월에는 일본연구센터를 개소했고, 2007년 9월 12일에는 지금의 민석도서관을 신축개관했다. 민석도서관은 2005년 7월 1일부터 약 2년간 건축되었으며 건축면적 3,492,16㎡(1,056평), 연면적 14,345.04㎡(4,339평), 지하2층, 지상6층 규모로 방대하다. 이렇게 큰 규모로 최첨단 시설을 갖춘 도서관을 완공해 개관하기까지는 학교당국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도서관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서와 교직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장서수는 약 38만 여권이며 비도서는



층별배치도

그룹스터디룸

약 4만점을 소장하고 있다. 직원은 총 10명(정규직 사서 7명, 계약직 사서 1명, 행정직 2명)이며 학생봉사장학생 약 30여명이 사서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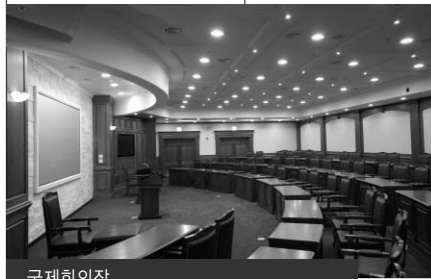
동서대학교는 현재 15개 학부에 10,000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이고 약 300명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이 동서대학교도서관의 주 이용자이다.

●●● 층별배치

지하2층에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휴식 공간인 e-cafe와 보존서고가, 지하1층에는 중국문화 및 중국 관련 자료를 갖춘 공자아카데미와 제2열람실이 있다. 지상1층에는 제1열람실과 노트북전용석, 다양한 매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매체별 부스(A/V, LAB, UCC, Web, Music, Game), 멀티플렉스, 컴퓨터 이용자를 위한 IT-zone이 있다. 2층에는 참고자료실과 제1자료실(000-400류의



주제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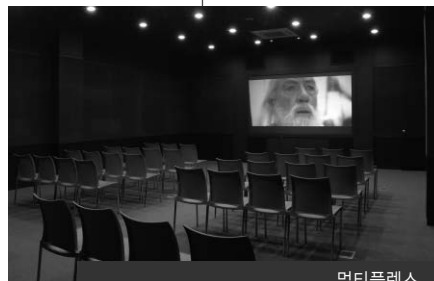


국제회의장

소장자료를 배치), 그룹스터디룸(11실)이 있으며, 3층에는 과제도서실, 제2자료실(500-900류의 소장자료를 배치), 주제코너(해외정보자료, 취업 및 수험자료, 신착도서코너, 추천도서코너, 신문열람), 그룹스터디룸(7실)이 있다. 4층에는 사무실, 수서정리실, 관장실, 기증문고, 귀중자료실, 정보교육실이, 5층에는 설립자 자료



음악감상을 즐기고 있는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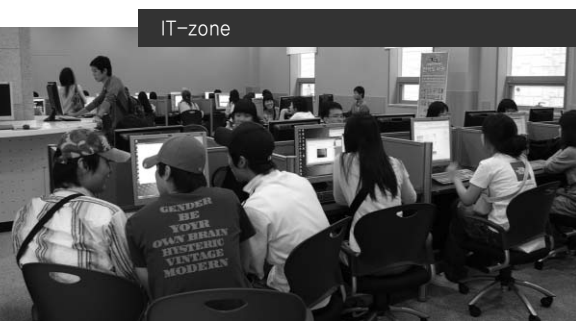
멀티플렉스

관과 박물관이, 6층에는 다목적 세미나실과 국제세미나실이 위치해 있다.

각 실내·외에는 편안하게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점, 바깥 경치를 맘껏 구경할 수 있도록 열람석 위치가 창가를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점 등이 맘에 들었다. 민석도서관 이외에도 국제협력관 8층에는 일본연구센터가, 관광사회복지관 7층에는 10월 8일(월)에 개소한 임권택 영화연구소가 있어 전문자료를 갖춘 민석도서관 분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도서관 이용교육 및 신입생 인성교양 대체수업

학생들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학습과제를 스스로



IT-zone

해결하고 보다 풍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 2002년부터 도서관 이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부별로 하루를 배정해 도서관 4층에 위치한 정보교육실에서 교육을 받는데 졸업을 하려면 학생들은 반드시 이 과목을 이수해야한다. 도서관 이용 방법 및 웹DB와 전자저널 사용법이 교육내용의 주를 이룬다. 본 강좌는 사서가 직접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도서관이나 사서에 대한 인식전환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며 서로간의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있다.

●●● 학교 특성화와 전문 자료실 운영

■ 영상분야 특성화

영상분야는 학교특성화부문으로 많은 투자를 했다. A/V룸에서는 비디오테이프와 DVD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고, UCC룸에서는 동영상 콘텐츠의 수정 및 편집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멀티플렉스에서는 최첨단 영상장비와 오디오 시설을 갖추어 영화상영이나 음악감상,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세미나실과 스튜디오도 영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해 학교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UCC룸에서 동영상을 편집하는 학생들



도서관탐방



이용교육 모습



■ 공자아카데미

지하1층에 위치한 공자아카데미는 중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국어 학습자들에게 우수한 학습 조건을 제공하는 자료실로 3천여 권의 도서와 각종 자료를 갖추고 있다.

■ 디자인 특성화 코너



디자인 특성화 코너

디자인 특성화 코너는 학교 특성화 교육의 일환으로 원래는 별도의 전문도서관으로 1999년 10월 디자인홀 1층에 개관했다. 현재는

민석도서관을 신축하면서 도서관 3층 제2자료실에 기존의 디자인도서관을 통합했다. 디자인 관련 전문자료를 약 6,000여권 소장하고 있다.

■ 일본연구센터

국제협력관 8층에 위치한 일본연구센터는 유능한 연구진을 중심으로 일본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폭넓은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9월 개관했다. 연구센터는 20종의 일본 간행물과 1만여권의 일본 전문분야의 장서를 갖추고 한일간의 지식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발신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연구센터

■ 임권택 영화연구소

지난 8일 개소한 임권택 영화연구소는 임 감독이 연출한 100편의 영화와 포스터, 자료등을 보관, 전시하고 있다. 향후 동서대에는 임권택 영화예술대학을 설립해 단과대학 체제로 운영하고 영화예술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 도서관 문화행사

작가와의 만남, 추천도서 선정 및 독후감 공모전, 도서전시회, 영화상영, 독서토론, 사진전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치고 있다. 독서사진포스터 공모전 작품전시회는 지난 2007년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1차,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두 차례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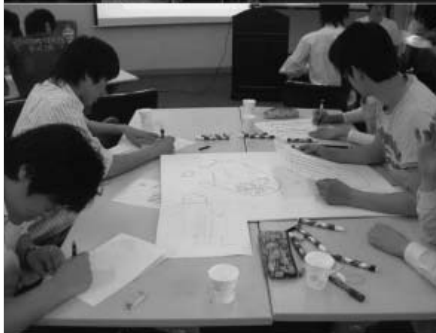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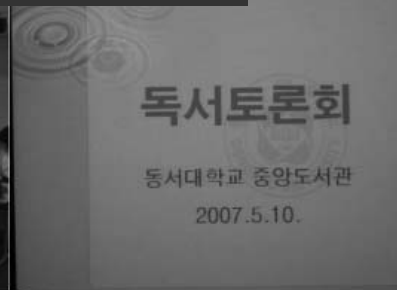
독서토론회는 지난해에 처음 시작했고 도서관 사서와 독서연계교과목 교수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실시한다. '이 한권의 책'을 선정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토론회를

벌이는데 온라인 토론회는 독서토론허게시판에 100자로 올리면 되고 오프라인 토론회는 도서관 4층 정보교육실에서 날짜를 정해 진행한다.

●●● 지역사회와의 협력

2001년부터 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 시작했는데 20세 이상 부산시민이 그 대상[단, 타 대학생 제외]이며 도서관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도서관에 제출하면 '시민열람증'을 받을 수 있다. 자료대출은 3권 7일(최대 14일; 1회 연장 가

독서토론회 모습



능)이다. 또한 2002년부터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월 23일)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 기증 받은 도서를 지하철역내 지하철문 고용 도서로 기증하고 있다.

동서대학교 민석도서관은 지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와 대학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노력하고 있다.

●●● 나오면서

동서대학교 민석도서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 우선 도서관 계단의 로딩동상과 건물의 웅장함은 도서관이 대학의 심장임을 상징해주는 듯했다. 도서관으로 올라가는 옆 계단의 에스컬레이터와 대나무로 멋스럽게 꾸며 놓은 조경, 도서관 옆에 작은 공원을 구성해 공원과 도서관을 연결해 놓는 등 도서관 외관과 조경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음이 돋보였다.

둘째, 이용자 서비스 부문이 탁월했다. 우선적으로 홈페이지에서 다른 대학 도서관에 비해 많은 양의 도서관 관련 일반정보나 사진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도서관 이용규칙과 절차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었다. 또한 도서관 이용에 도움이 될 만한 도서관 통계(방문통계, 대출도서순위, 검색순위, 장기연체자리스트, 월별대출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특색 있다. 실마다



사서들이 직접 만든 도서관 이용안내 리플릿



3층 제2자료실 내부 모습

배치된 정보데스크에는 도서관 이용법에 대해 사서들 각자가 영역별로 직접 리플릿을 제작해 비치하고 있었다. 또 사서와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자료실 곳곳에 인터폰을 설치한 점도 특색 있었다. 카펫이 깔린 자료실에는 안락한 소파가 놓여져 있고, 이용자들이 아름다운 경치를 조망할 수 있도록 창가를 중심으로 열람공간을 배치한 점 등도 도서관을 돋보이게 했다. 지하에 있는 e-cafe는 학교 밖에 있는 스타벅스나 커피빈보다도 훨씬 더 아늑하고 고급스러워보였다. 생각건대 학생들을 유혹할 만한 그 무언가가 민석도서관에는 가득했다.

셋째, 영상분야가 학교특성화부문이라는 하지만 생각보다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 단연 돋보이는 공간이었다. 마침 방문했을 때 영화를 상영 중이었는데, 시중 극장보다도 훨씬 편안한 공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또 UCC룸에서 동영상 콘텐츠를 편집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도서관이 학생들에게는 만물상이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다.

넷째, 자료실마다 소그룹스터디룸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방마다 학생들

이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과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대학도서관의 또 하나의 큰 기능은 연구기능강화라는 생각을 다시금 되새기게 해주었다.



u-Zone 브라우징코너에서 자유롭게 스터디를 하고 있는 모습

다섯째, 전문자료실과 박물관등을 두루 갖춘 점이 돋보였다. 외국대학도서관들은 한 캠퍼스 안에 여러 개의 단과대 도서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아직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동서대학교 민석도서관은 이런 점을 보완해 주듯 4개 분야에서 자료특성화를 하고 있었다. 공자아카데미, 디자인 특성화 코너, 일본연구센터, 임권택 영화연구소 등을 갖췄다. 도서관은 본관 하나뿐이



소파에서 편안하게 책과 신문을 보고 있는 학생들

지만 자료특성화에 따라 도서관 밖 건물에도 전문자료실을 개설해 이용자들이 다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앞으로도 도서관이 학교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자료 특성화를 확대하고 비도서 자료의 구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여섯째, 지역사회와 대학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 개방 및 지하철문고에 도서를 기증하는 등의 활동도 펼치고 있어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이 돋보였다.

역시나 동서대학교 민석도서관은 우리 《도서관문화》 편집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실력있고 열정적인 사서들이 많다는 점과 학교당국의 도서관에 대한 큰 관심이 지금의 민석도서관을 만들었을 것이다. 현재도 볼 것이 많고, 배워야할 점이 많은 도서관이지만, 앞으로 계획한 더 많은 일들을 꼭 이루어 사회 각계에서 대학의 심장은 대학도서관이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케 하는데 민석도서관이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㉞)

(글 : 심효정, 사진 : 심효정, 최인경)

카펫이 깔린 자료실에서 편하게 책을 보고 있는 학생들

